

GIST,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협력 방안 논의

- 지역 고령친화산업 육성 현황 및 센터 우수사례 공유
- 고령친화산업 진흥을 위한 상호협력 및 시너지효과 기대



▲ GIST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고령친화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(센터장 오창명, 이하 센터)가 29일(월) 제주특별자치도의회(의장 김경학)를 초청해 **지역의 고령친화산업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**했다고 밝혔다.

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**고령사회를 준비하는 복지정책 방향을 모색**하고 **고령친화산업 육성 현황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**하기 위해 이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찾았다.

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병우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하영·원화자·이경심 의원 및 관계자, 광주광역시 로봇가전의료산업과 박용범 팀장 등 총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**오창명 센터장이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센터 운영 현황을 설명**하고 **주요 시설을 소개**하였다.

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GIST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 및 우수한 실적 중 하나인 **코스메디케어 사용성평가 환경과 일상생활 리빙랩 기반 실환경 실증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지원 사례**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, 향후 양 기관이 **보유한 역량을 결집**하고 **협력 가능한 방안**에 대해 논의하였다.

오창명 센터장은 “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센터 방문은 **고령친화산업 진흥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업 채널을 새롭게 구축**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”며 “앞으로도 고령친화산업 분야의 실증 및 사용성 평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함으로써 **국내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기여**하도록 힘쓸 것”이라고 말했다.

한편,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'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' 지정, '라이프케어로봇 실증기반 조성사업', '시니어코스메디케어실증센터구축사업' 등의 사업 수행을 통해 괄목한 만한 성과 창출과 관련 산업에 대한 기반 구축으로 **지역 고령친화산업 성장을 선도**하고 있다.